

원천기술 개발로 '경쟁력' 확보 농약 부정적 이미지 제고 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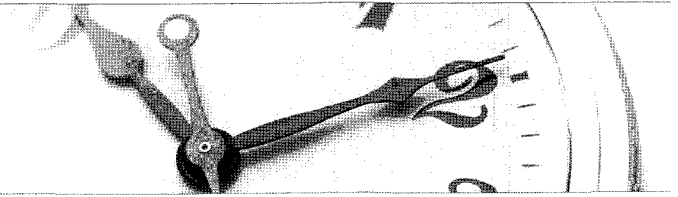
친환경농자재 비중확대·기후변화 따른 '대안마련' 시급
생산자 → 소비자 위주로 산업중심변화...업계 공동 고민



■ 한국농자재CEO포럼(농약분야)

- 주최 : 농촌진흥청, 농수축산신문
- 날짜 : 2011년 10월 27일
- 장소 : JW메리어트호텔 3층
- 참석자
 - 민승규 농촌진흥청장
 - 리승용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장
 - 이광하 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장
 - 한태원 한국작물보호협회 회장
 - 안광욱 한국작물보호협회 부회장
 - 이병만 (주)경농 부회장

- 최영찬 (주)동부한농 부사장
- 하랄드 프린츠 바이엘크롭사이언스(주) 대표이사
- 유병두 바이엘크롭사이언스(주) 부사장
- 박종영 성보화학(주) 사장
- 김용환 신젠타코리아(주) 대표이사
- 강성국 (주)영일케미컬 대표이사
- 전정희 농수축산신문 대표이사
- 최기수 농수축산신문 발행인
- 차재선 한국농자재신문 대표이사
- 사진 : 농수축산신문사 임익복 차장



농수축산신문사(사장 최기수)와 농촌진흥청(청장 민승규)이 공동으로 주최한 「한국농자재 CEO포럼- 농약분야」이 지난 10월 27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개최됐다.

△비료, 친환경분야 △종자 분야 △농기계 분야 에 이어 네 번 째로 개최된 이날 CEO 포럼에는 농약업계 메이저 회사들이 모두 참석해 업계 현안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벌였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업계와 기관 대표자들은 농약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 모색,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원천기술 개발 필요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한국농자재CEO포럼[농약분야] 주요 내용을 지상 중계한다.

민승규 농촌진흥청장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생산뿐만 아니라 농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최근 농약업계 트렌드는 화학농약 사용이 점차 줄어들고 친환경농자재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병해충 발생을 줄이는 쪽으로 가고 있다. 농약산업의 무게 중심 역시 생산자 위주에서 지금은 소비자 위주로 변화하고 있다. 앞으로 농약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과거의 잣대가 아닌 미래의 잣대를 갖고 현재를 파악해야 할 것이며 업계가 이 같은 시각으로 대안을 모색하길 바란다.

한태원 한국작물보호협회장



축구도 공격과 수비가 있는데 농약업계는 늘 수비만 하게 된다. 기여하는 부분은 늘 경시되고 마치 독극물을 만드는 회사처럼 인식되고 있어 사고의 전환을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또한 우리나라도 자체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일이 무척 중요하다고 본다. 20년 전 포니의 생산으로 지금의 현대자동차가 있는 것처럼 자체 원천기술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베트남 시장을 개척중인데 농촌진흥청의 코피아(KOPIA, 해외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유익했다. 코피아 기능이 더 활성화됐으면 한다.

민승규 농촌진흥청장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원천기술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오래 전부터 논의됐지만 이렇다 할 액션이 없었다. 원천기술에도 다양한 분야가 있을 것이다. 업계와 기관이 함께 노력해 가장 필요한 것, 가능성 있는 것은 무엇인지 우선적으

로 설정하고 이와 관련해 농진청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겠다. 대한민국의 농업기술이 세계 7위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데 이러한 원동력에는 기반산업의 역할이 컸다고 본다. 코피아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현지 진출 한국기업체를 지원하는 일이며 이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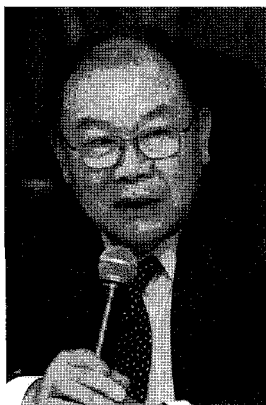
이병만 (주)경농 부회장



업계는 몇 년 전 농약의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명칭을 작물보호제로 바꿨다. 식량증산 등을 통한 사회 이바지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대부분 비판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명칭을 바꾼 지 벌써 5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이를 많이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식의 차이를 줄이지 못해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명칭 문제 역시 언론사와 농진청에서 고민해봐야 할 문제다.

또한 농약산업에 대해 국민들이 알아야 할 필요성과 같은 부분은 홍보를 해주어야 한다. 식량은 곧 세계의 이슈이며 작물의 수입이 점차 늘고 있는 상황에서 식량자급이 확보되지 않으면 물가 조절 등의 기능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근본적으로 안전성 뿐 아니라 인식의 전환을 위한 노력 역시 해주기를 바란다.

최영찬 (주)동부한농 부사장



최근 2~3년간 기후 변화로 농약업계는 치명타를 입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다. 이상 기후에 대처하는 방법은 판매업만의 문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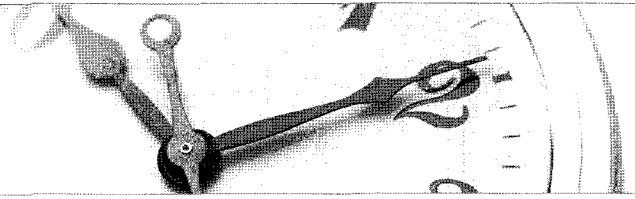
아닐 것이며 기관이나 연구진 등도 함께 풀어야 할 절실한 과제이다. 병해충 발생의 패턴도 바뀌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칫 과도한 재고 등 위협적인 요인이 생길 수 있다. 한편 최근에는 제네릭농약을 판매할 수 있는 업체 수가 늘어나고 있어 유통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유통의 안정을 위해서는 판매업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김용환 신젠타코리아(주) 사장



이달 초 유럽으로 식품유통 관련 산업을 둘러보기 위해 출장을 다녀왔다. 스페인은 유럽에 채소를 많이 공급하는데 잔류농약 개수도 제한하고 이에 대한 기준치도 낮으며 실제

잔류치 역시 기준보다 훨씬 적었다. 유통채널에



서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시스템으로 변화해갈 것이다. 화학농약보다는 다국적기업의 관심이 쏠려있는 바이오컨트롤 방향의 원천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바이오기술에 투자한다면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화학농약은 아무리 농도가 낮아도 독극물이란 이미지가 팽배해 있고 우리가 이를 바꿀 수 없다면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야한다. 세계적인 애그플레이션이 일어났던 2007, 2008년에 우리나라가 이를 상대적으로 피해갈 수 있었던 원인은 국내 자급률 유지에 있었다. 농산업에 종사하는 것에 자긍심을 갖고 농업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하랄드 프린츠

바이엘크롭사이언스(주) 대표이사



지금까지의 농약산업이 생산자 위주의 비즈니스였다면 점차 농민을, 식품을 소비하는 소비자까지 고려하는 벨류체인이 필요하다는 것은 매우 동의한다. 업계는 고독성농약에 대한 관리문제로 자진취하라는 어려운 결정을 했으며 바이엘은 특히 2010년도에 이 사업을 모두 정리했다. 안전성관리 차원에서 비즈니스를 포기하고 클린 포트폴리오를 구축, 안전성

위주의 제품구성으로 변화를 시도해 왔다. 2003년부터 한국에 있다가 태국을 거쳐 다시 한국에 왔는데 기후변화를 비롯해 많은 변화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새로운 기술변화나 혁신에 있어서 농민들의 요구에 맞춰주는 일이 중요하며 신제품 개발도 좋지만 기존제품을 어떻게 더욱 유용화할 수 있을지의 문제도 필요하다. 한편 GAP(농산물우수관리제도)에 있어 농민들의 충분한 이해를 돕는 일도 필요하며 이 같은 안전사용과 관리에 있어 바이엘도 기여하고 싶다.

민승규 농촌진흥청장

그동안 농약업계 벨류체인을 그려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업계와 연구기관들이 의지를 모아 벨류체인을 분석해 봐야 한다. 그래야 원천기술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 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연구비는 기관에서 충당하더라도 직접적인 연구와 참여는 업계에서 도맡아야 한다. 과거 대규모 선박과 항구만 만들며 유통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했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실제 적용해 보니 곡물의 신선도가 문제로 도출됐다. 그래서 개발된 것이 컨테이너다. 벨류체인을 먼저 분석해 보지 않아 생겨난 오류다.

강성국 (주)영일케미컬 대표

업계로 오기 전 농약소비자의 입장이었다. 산업계로 발을 던지게 되면서 지켜보니 정부나 기관에서 농약업계를 너무 경시해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농약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면 무조건 업계만 두드리며 책임을 전가 시키곤 했다. 정부입장에서는 소비자가 왕이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옳고 그름은 가려주기를 바란다. 일방의 욕구충족을 끝까지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농촌 사정으로 파악할 때 오리지널 농약만 갖고는 힘들다. 제네릭, 즉 복제농약도 나와서 저가농약으로써의 기능도 해야 공급이 원활해져 소비자들의 경영이나 생산에 실익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단속이나 규제를 엄격히 하더라도 실익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박종영 성보화학(주) 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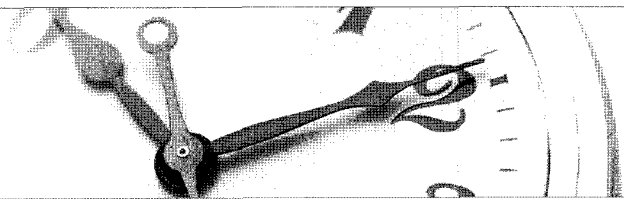
처음 입사해 생산직 말단사원부터 시작했다. 실제 생산에 종사하면서 당시 국내 농업자재검사소로부터 여러 검사를 받으며 유효성분 함유량 허용범위에 관한 건의를 했던 적이 있고 결국 수용이 됐다. 농진청은 법이나

시행령 개정에서 제약이 많을 것이라 사료된다. 하지만 업계가 관련법의 수정이나 건의사항을 제시하면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 농약합성을 하다보면 유해화학물질을 자주 취급하게 되는데 참고관리에 있어 잠금장치를 풀고 잠그는 기록체크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해야 했다. 이 역시 합리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개선이 된 것처럼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면을 잘 살펴 검토를 해주길 바란다.

안광욱 한국작물보호협회 부회장



우리나라 농작물의 95% 이상이 농약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미지개선이 매우 시급하다. 소비자가 갖고 있는 농약에 대한 불신은 매우 막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극미량의 성분을 갖고 무조건 농약으로 인한 것으로 몰고 가기도 한다. 하지만 실상 잔류농약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매우 희박할 뿐더러 기준치 이상의 잔류농약이 검출된 농산물은 시중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신뢰를 쌓아올리긴 어려울지언정 개선의 노력은 필요하다고 본다. 농약의 필요성이나 개발, 등록과정, 잔류농약 검사체계 등을 커리큘럼화해 교과에 반영하는 등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액션



이 필요하다고 본다.

차재선 한국농자재신문 대표이사



최근 경남 하동에서 태평농법을 하고 있는 농가를 방문했다. 직파만 하고 아무런 관리를 하지 않은 채 수확기에 수확만 하는 것인데 수확량은 관행에 비해 47~50% 가량 나오고

있으며 가격은 2배를 받는다고 하더라. 생산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반만 생산해도 이익이 높다고 한다. 이렇게 지은 쌀이 없어서 못 팔고 있을 현재 상황에서 농약업계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얼마 전 슈퍼잡초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항성이 있기는 하지만 충분히 방제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슈퍼'라는 단어 하나로 사회가 들끓었다. 이제 고독성, 맹독성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전폭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최기수 농수축산신문 발행인

1990년대 초 원제 개발과 관련한 프로젝트를 논의했으나 실패했다. 새롭게 원제 개발한다면 이를 벤치마킹해 실패원인을 분석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이미지 제고와 관련해서도 아이러니한 것이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원산지나 안전성 등과 관련해 단속을 나가면 몇몇 업체들이 적발된다. 그러면 마치 원산지를 위반한 곳이 매우 많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정작 단속을 나가지 않아 잠잠하면 반대로

위반하는 업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유한킴벌리라는 회사는 사실 벌목사업을 하는 환경과 괴회사나 다름없지만 홍보를 잘해서 이미지가 매우 좋다. 지금까지의 정책은 농업 자체 위주였는데 관련산업을 위한 정책 역시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낀다. 오늘 거론된 벨류체인 등을 통해 업계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민승규 농촌진흥청장

대한민국의 농약산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더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벨류체인 분석을 시작해보자.

농약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 협회 차원에서 분석을 통해 얼마나 농약의 사용량이 줄었는지 독성이 줄었는지 등 트렌드에 대한 데이터를 만들고 이러한 사실을 기반으로 이미지 전환은 물론 업계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유효하다고 본다. ㉞